

유학 사상과 생태학 (편집: 메리 에블린 터커 / 존 버스롱)

제 3 부: 중국, 한국, 일본의 개념적 자료들

1. 5편의 논문

- 1. 존재의 연속성: 자연에 대한 중국의 이해 (두웨이밍)
- 2. 반응과 책임: 환경윤리는 위한 주돈이와 유교의 자료들 (조셉 A. 아틀러)
- 3. 주희의 환경상관 철학 (도시오 구와코)
- 4. 율곡 우주론의 생태론적 암시들 (노영찬)
- 5. 생태론적 우주론으로서의 기철학 (메리 에블린 터커)

2. 전체적인 질문들

- 유교 사상에서 생태학적 관점을 발견하는 것.
- 공자의 인을 중심으로 한 원시 유교와 기 이론과 음양오행론을 중심으로 한 신유교: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공자 및 그를 포함한 원시유교의 주장과는 달리, 신유교는 인간의 방식과 천의 방식의 내적 연합을 명백하게 추구하였다.
-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우주 중심의 세계관
- 인간과 우주의 관계성
- 동양과 서양:
 - 창조신화와 중국인; 중국인인 유대-그리스도교의 신관과 다르다(무에서 유를 창조한). 중국인은 우주 밖에 존재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다.
 - 창조신화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의 연속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포용하는 우주 기능의 조화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4. 기

- 우주가 기라고 하는 기체의 물질로 이루어진다는 소위 음양오행론이 중국의 자연관
- 기 개념은 중국의 초기 원시 유교 시대에서 생겨났고,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된 실재에 대한 통일된 비전을 제시한다.
- 기철학은 물질과 정신, 마음과 몸으로 나누는 서구의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서는 비이원론적 우주론을 제공한다.
- 주돈이의 태극도와 태극도설 (화수목금토, 건과 곤)
- 주돈이는 우주 현상을 기의 물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진술할 때 끊임없이 생명을 생산하는 과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물리적, 객관적 설명들을 연결하는 개념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 주돈이의 비이원론적 마음 개념: 인간의 몸은 마음의 기능이 작동한 후에 구체화된다
- 장재의 기 개념: 인간의 마음과 우주적 질서가 기의 원리를 통해 내적으로 연결되었다
- 장재는 존재가 무로부터 생겨난다고 주장하는 도교의 입장 그리고 인간이 실재에 대해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불교의 입장과 다른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현상계를 기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더욱이 그는 비존재를 현상이 사라지고 절멸하는 공허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는 융합과 혼합을 통해서 변형되기 때문에 장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비존재를 생명과 생성과 변혁의 원천으로 간주한다.
- 율곡의 기, 양, 음, 리의 원리: 기가 움직일 때 그것은 양이고, 기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것은 음이다. 그러므로 양과 음은 두 가지 다른 요소들이 아니라 기의 두 가지 모습 혹은 현상이다. 그러나 기가 음과 양의 원천 (음이 되거나 혹은 양이 되는 원천)인 반면에 그것의 변화를 지배하는 법칙은 리이다 (p. 265)
- 기철학의 7가지 공헌 (p. 273)

5. 인간과 비인간 세계의 상호 연관성

- 주돈이: 잡초가 가진 살려는 의지는 내가 가진 살려는 의지와 같다.
- 율곡은 우주의 리와 기를 인간에게 연결한다: 인심과 천심은 동일하다. 인심이 올바를 때 천심 역시 올바르다. 인간의 기가 질서를 가질 때 천지의 기 역시 질서를 갖는다. (p. 265)
- 장재: 하늘을 아버지라고 하고 땅을 일러 어머니라고 한다. 나는 미소한 존재이면서 혼연히 그 가운데에 처한다. 그러므로 천지에 가득 찬 기는 나의 몸이며 천지의 주체는 나

의 본성이니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요 모든 사물은 벗이다. . . . 살아서 천지를 따르고
섬기며 죽어서 편안해진다. (p. 280)

-주체와 주체로서의 관계

6. 성 (진실 성)과 성인의 개념

-주돈이는 성인됨을 1. 성 (진실 성; 참된 마음), 2. 기미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3. 관
통하는 (이해하는) 신령한 능력 그리고 의도적인 생각 없이 사물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것이 성 (진실 성)이다.
자극을 받고 통하는 것이 신이다. 움직임이나 실존과 비실존 사이에서 형성되지 않은 것이
기이다; 성은 본질이므로 밝다. 신은 반응하므로 오묘하고, 기미는 미묘하므로 모호하다.
성, 신, 기미를 성인이라 한다. (p. 212)

-통서 1장: 성 (진실 성)이 성인의 토대이다. 천의 기원적 힘은 실로 크다! 만물의 근원
이 하늘에서 시작되니, 그것은 성의 근원이다. 천도가 변화하여 각 성명을 바르게 하니,
성은 이렇게 확립된다. (p. 215)

-중용 22장의 주제: 오직 지극한 성 (진실 성)에 이른 인간만이 자신의 본성을 다할 수
있다. 그 자신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모든 인간의 본성도 다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만물의 본성을 다할 수 있다. 만물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천
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다.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다. (p. 213)

-성인은 그의 생각, 의도, 욕구 그리고 행위가 자신 안에 있는 자연/도덕 질서에 능동적
감각을 갖고 자연스럽게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다. 성인은 다른 도덕적 주체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에 도덕적으로 반응한다.

-성인은 “사물과 조화를 이룸으로” 혹은 “생겨나는 사물에 따라 반응함으로” 자기 자신
의 의지를 자연에 강요하지 않는다.

-성인이 통치할 때 그는 도를 중시하고 말하지 않지만 그의 친절함이 만백성에게 이른
다. 그러나 왕과 대신들이 마음으로부터 서로 불신할 때 하늘에 (태양 양쪽에) 움푹하고
불룩한 무리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경탄할 만한 신기의 상호영향의 증거이다. . . . 왜
냐하면 음과 양이 기를 공유하며 서로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p. 210)

-자연과의 연속성 속에서 존재 그 자체로 인간의 마음은 우주적 과정을 알고, 그 과정이

되며, 과정을 재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늘이 부여한 계시, 성찰 혹은 명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감정적이며 참여하는 단계를 통해서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지식은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 같은 것이 아니다. 또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진술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물들의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반응이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응과 연합이다. 그것은 공간, 시간, 생물의 종들 그리고 개별자들로 분리된 세계 속에서 우주의 원초적 연합을 현실화하는 인과론적 형태가 아닌 존재론적 형태이다. (p. 211)

-유교의 영성은 단지 내면성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물의 접촉, 감성, 그리고 관통을 포함한다. 사실, 신유교의 신령 개념은 기 그 자체이다. 그것은 자연 과정의 근거에 있는 연속성과 관통을 의미한다. 신령한 관통은 궁극적 실재와의 진실한 접촉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인의 마음은 궁극적 실재의 표현이다.

-신유교 이론에 있어서 생태 중심적 관심과 인간 중심적 관심을 구별하는 것,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인간의 이익과 자연의 이익이 함께 기초하는 질서/원리를 발견하도록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7. 질문

-원시유교, 신유교, 혹은 각자의 세계관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연이 인간의 사유와 가치 체계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고유한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